

Cpb.e.20

第四回 外登法 問題國際 SYMPOSIUM

主題：戰後處理, 戰後補償과
在日韓國人의 人權

日時：1994年 11月 21日(月) - 24日(木)

場所：서울 漢江 Hotel(453-5131)

主催：日本 外登法問題全國基督教連絡協議會

日本 NCC, 在日外國人人權委員會

韓國教會在日同胞人權宣敎協議會

韓國 NCC 人權委員會

第四回 外登法 問題國際 SYMPOSIUM

主題：戰後處理, 戰後補償과
在日韓國人의 人權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비고
12.10.04	C3	✓

日時：1994年 11月 21日(月) - 24日(木)

場所：서울 漢江 Hotel(453-5131)

主催：日本 外登法問題全國基督教連絡協議會

日本 NCC, 在日外國人人權委員會

韓國教會在日同胞人權宣教協議會

韓國 NCC 人權委員會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면서

제4회 국제심포지움을 한국에서 갖게 된 것을 감사하며 이번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하신 한.일 양국 대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 25:40)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자 하나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날 어두웠던 일제 식민 통치시대의 부산물로 수많은 지극히 작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억울하게 징병.징용.정신대로 끌려가 그 무서운 태평양전쟁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케도 살아난 지극히 작은자들이 우리주변에 수없이 많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지 반세기가 다되었지만은 아직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 상처나 고통을 치유받지 못하고 내동댕이 쳐진 채 고통당하는 내 동족과 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빈곤한 국가 백성들이 살길을 찾아 부자가 된 나라 안마당에 들어와 일감을 얻기 위해서 서성대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이같이 지극히 작은자들을 냉대하며 일을 시켜도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하나의 기계처럼 혹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형제들이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되어 국경과 이해를 초월하여 사랑의 실천운동으로 이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과 길을 모색하는 사업과 국제심포지움을 가져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는 좋은 길이 될 줄 믿으며 이것이 오늘 이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이며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이 보다 진지하고 내실있는 심포지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지극히 작은자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94. 11. 21

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회 장 이 정 일

第4回 外国人登録法問題の国際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ながら

第4回 国際シンポジウムを韓国でもつことになりましたことを感謝しながら、今度の国際シンポジウムにご参席なさいました韓・日両国代表皆様方を真心から御歓迎いたします。

私共は“極く小さい者一人に施したことが直ちに私にしたものだ”(マタ25:40)と言われる主イエス様のお話を支持し、わたくしたちの周囲にある小さいもの一人に対しでも多大な関心をもって参りました。

去る日、暗かった日帝植民統治時代の副産物として数多いごく小さいものがたくさん出ました。その中にはくやしくも徴兵・徴用・挺身隊に引張られて行き、あの恐ろしい太平洋戦争のうずまき内でも神様のお恵みで生き残った小さいものたちが私共のまわりにたくさん生存しておられます。

けれども戦争が終って半世紀になりながらも未だ何等の補償も受けられず、その傷や苦痛を治療もされずに放棄されたまゝ苦勞する我が同族と隣り近所の人たちがどれ程多いことでしょうか？そうかと言えば貧乏な国家の人達が生きるために豊かな国家へ行き職業を求めています、自国の利己主義にとらわれ、この様にごく小さいかわいそうな人達を冷待しており仕事をさせでも正当な待遇をせずに一つの機械の様に酷使する場合がどれ程多いか知れません。しかしキリストの愛情をもっている兄弟たちがキリスト内で一つになり国境や利害をふみ越えて愛情の実践運動でもって彼等をたすけることの出来る国際シンポジウムをもつ事になりましたことを本当にうれしく、これがキリストの愛情をこの地に実現することになると信じこれがこの時代の神様の事業であり私共が受けた使命であると信じます。

今度の国際シンポジウムがより充実に内実のあるシンポジウムになり神様の貴い愛情がごく小さい者たちと一緒になる機会になりますよう希う次第であります。

神様のおめぐめがこの国際シンポジウムにご参席なさいました皆様と共になさいませう様真心からお祈り申し上げます。

1994年11月21日

韓国教会在日同胞人権宣教協議会
会 長 李 正 一

行事日程

	21日(月)	22日(火)	23日(水)	24日(木)
7:30		① 禮拜(日本)	⑧ 禮拜(在日)	
8:00		朝 食	朝 食	朝 食
9:00		④ 主題講演 (韓國)	⑨ 全體討論	現場研修 (堤岩里, 獨立記念館)
10:30	⑤ 特別聖書研究 (韓國)			
11:30		日本大使館 前 示威 參加		
12:00	中 食			
13:00		⑥ 主題講演 (日本)	中 食	
14:30		⑦ 事例報告 1. 日本 2. 日本 3. 在日 4. 韓國 5. 韓國 6. 韓國	⑩ 全體討論 聲明書 發表 記者會見	
17:00	接受 ① 開會禮拜 (韓國) 日程案內		⑪ 閉會禮拜 (日本)	
18:00	歡迎晚餐會	夕 食	夕 食	
19:30	② 主題講演 (在日同胞)	分 課 討 論		
21:00	親交時間		親 交	
22:00				

PROGRAM

特別聖書研究：韓國側 - 閔泳珍 教授(舊約學, 聖書公會副總務)

主題講演 I：(在日側) 裴重度(民族差別 싸우는 連絡協議會 會長 / 在日大韓基督教川崎教會長老)
[在日同胞의 課題와 展望] - 司會 - 飛田雄一

主題講演 II：(韓國側) 池明觀 教授(翰林大)

[戰後處理와 새로운 韓日關係] - 司會 -

主題講演 III：(日本側) 穗鷹 守(外基協 事務局長/ 日本基督教 教團 在日 韓國朝鮮人, 日韓連絡特別委員會 委員長)
[戰後 50年の 日本教會의 課題] - 司會 - 土井桂子

分科會：I / 戰後處理, 戰後補償과 在日韓國, 朝鮮人의 人權

II / 自由人權規約과 少數民族의 權利, 地方自治, 共生社會의 實現

III / 戰後50年과 Shalom의 實現, 少數者權益運動의 省察

事例 報告：1 (日本側) 1993年 [全國 Caravan] 報告：八幡明彦 先生

2 “ {日, 韓, 在日教會共同 資料集} 報告：吉高 亨 教授

3 (在日側) [少數民族의 問題와 宣敎戰略 國際會議]

報告：李清一 牧師

4 (韓國側) [在日同胞 苦難의 現場訪問] 報告：魯貞烈 牧師

5 (“) [挺身隊問題] 報告：金慶姬 總務

6 (”) [外國人 勞動者運動] 報告：金海性 牧師

禮拜：開會禮拜(韓國側) 金炯泰(예수敎長老會前總會長)

- 司會 - 李正一 牧師

禮 拜(日本側) 府上征三

- 司會 - 志賀直子 先生

禮 拜(在日側) 金桂吳 牧師

- 司會 - 大木弘行 先生

禮 拜(日本側) 大津健一 牧師

- 司會 - 江戸夕子 先生

全體討論 <日本側司會者> 岩本和側

次 例

第四回 外登法 國際 SYMPOSIUM을 開催하면서	2
日程表	4
PROGRAM	5

弟一部 國際 SYMPOSIUM 順序

開會禮拜	7
Orientation	10
歡迎晚餐	11
아침禮拜	13
開會禮拜 說教文	21
特別聖書研究	27
事例報告	35
分課會議	36
全體會議	37

弟二部 講演資料

主題講演 1 (在日同胞側) - 主題: 在日同胞의 課題와 展望	39
“ 2 (韓國측) - 主題: 韓國과 在日韓國人 社會	41
“ 3 (日本측) - 主題: 戰後 50年과 日本教會의 課題	43
事例報告 1) 日 本 - 外國人登錄法, 法的地位 問題의 今日의 課題	67
2) 日 本 - 日, 韓 在日教會共同 資料集	70
3) 在日同胞 - 少數民族의 問題와 宣敎戰略 救濟會議	71
4) 現場訪問團 - 在日同胞苦難의 現場 訪問報告	76
5) 挺身隊 問題 - 日本軍 '慰安婦' 問題解決을 위한 活動	81
6) 外國人 勞働者 問題 - 外國人 勞働者 우리의 이웃입니다.	91

次 例

SYMPOSIUM 國際 SYMPOSIUM 程序
PROGRAM

第一節 SYMPOSIUM 程序

- 1. 開幕禮 10
- 2. 祈禱 11
- 3. 金炯泰 牧師 12
- 4. 李正一 牧師 13
- 5. 鄭泰俊 牧師 14
- 6. 曹容述 牧師 15
- 7. 金炯泰 牧師 16
- 8. 李正一 牧師 17
- 9. 鄭泰俊 牧師 18
- 10. 曹容述 牧師 19

第二節 講演資料

- 1. 在日同胞(一) 主題：在日同胞的團結與發展 10
- 2. 在日同胞(二) 主題：在日同胞的團結與發展 11
- 3. 在日同胞(三) 主題：在日同胞的團結與發展 12
- 4. 在日同胞(四) 主題：在日同胞的團結與發展 13
- 5. 在日同胞(五) 主題：在日同胞的團結與發展 14
- 6. 在日同胞(六) 主題：在日同胞的團結與發展 15
- 7. 在日同胞(七) 主題：在日同胞的團結與發展 16
- 8. 在日同胞(八) 主題：在日同胞的團結與發展 17
- 9. 在日同胞(九) 主題：在日同胞的團結與發展 18
- 10. 在日同胞(十) 主題：在日同胞的團結與發展 19

開 會 禮 拜

司會：李正一 牧師

默 禱	-----	一	同
讚 頌	----- 20장 다 감사 드리세 -----		“
祈 禱	-----		말 은 이
聖經俸讀	-----		司 會 者
說 教	-----		金炯泰 牧師
人 事	-----		李正一 牧師
讚 頌	----- 364장 내 주를 가까이하게 함은 -----	一	同
廣 告	-----		鄭泰俊 牧師
祝 禱	-----		曹容述 牧師

Orientation

司會：鄭泰俊 牧師

歡迎晚餐

司會：鄭泰俊 牧師

場所：廣場 教會

歡迎辭(韓國) ----- 朴春和 牧師(教會協 副會長)

答辭(日本) ----- 大津 健一 牧師 (NCCJ 總幹事)

人事紹介 ----- 金景南 牧師

親交時間

司會：金景南 牧師

22日 아침 禮拜

司會：志賀 直子 (日本聖公會)

讚 頌 -----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 同

聖 書 ----- 에스겔 18:30-32 ----- 司 會 者

說 教 ----- “스스로 돌이키고 산다” ----- 府上 征三(日本基督教壇)
“ひるがえつて生きる”

23日 아침 禮拜

司會：大木 弘行(日本聖公會)

讚 頌 ----- 261장 어둔밤 마음에 잠겨 ----- 同

聖 書 ----- 갈라디아서 3:26-29 ----- 司 會 者

說 教 ----- ----- 金 桂 昊
(在日大韓基督教會)

讚 頌 ----- 521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 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E. A. Hoffman, 1878
WASHED IN THE BLOOD: 11.9.11.9 REF
E. A. Hoffman, 1878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조성 1:7)

보통으로 ♩ = 96
1.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 주 예수 밤낮에 다 시 외우면
3. 주 예수 수에 더러워진
4.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더러워진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대 십자가에 오르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대 십자가에 오르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대 십자가에 오르면

후렴
예수 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 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 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 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Have you been to Jesus.

어둔 밤 마음에 잠겨

이동준, 1946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곡 10:15

보통으로 ♩ = 92
1.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2.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3.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전도와 선교

あなたのつみあやまちは

Have you been to Jesus
ELIHA A. HOFFMAN, 1878-1929 (RM)
「HATULASIN OIN (447) (2.2.2.2)」
(調 5:1)

1. あなたのつみあやまちは
2. あなたのつみあやまちは
3. あなたのつみあやまちは
4. あなたのつみあやまちは

あなたのつみあやまちは
あなたのつみあやまちは
あなたのつみあやまちは
あなたのつみあやまちは

（ほりかえし）
つみを つみを くだれもすかれに
つみを つみを くだれもすかれに

仁は十字架のちしきをよめよ
仁は十字架のちしきをよめよ
仁は十字架のちしきをよめよ
仁は十字架のちしきをよめよ

(セ. 417)

ここにいたみが

이동준, 1946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곡 10:15

보통으로 ♩ = 92
1. 여기에
2. 여기에
3. 여기에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어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찬미

어둠 밤 마음에 잠겨

(訳. 讃歌委員会)

MONSELL : 12.10.12.10
W. F. Sherwin (1826-1898)

J. S. Monnell (1811-1875)
프랑스어곡 J=104

1. 거룩한 주님께
2. 주님께
3. 주님께
4. 주님께

영광찬양
영광찬양
영광찬양
영광찬양

찬양과 경배
찬양과 경배
찬양과 경배
찬양과 경배

아멘
아멘
아멘
아멘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MONNRI
William F.H. Sherwin, 1831-48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찬양과 경배
찬양과 경배
찬양과 경배
찬양과 경배

아멘
아멘
아멘
아멘

- 1 주님의 영광 찬양을
이제부터 시작하여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림으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림으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림으로
- 2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경배를
- 3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경배를
- 4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경배를

EIN FESTE BURG 8787.6.6.6.67
M. Luther, 1529

1. 내 주는 강한 성이요
2. 내 주는 강한 성이요
3. 내 주는 강한 성이요

1. 내 주는 강한 성이요
2. 내 주는 강한 성이요
3. 내 주는 강한 성이요

1. 내 주는 강한 성이요
2. 내 주는 강한 성이요
3. 내 주는 강한 성이요

1. 내 주는 강한 성이요
2. 내 주는 강한 성이요
3. 내 주는 강한 성이요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EIN FESTE BURG
Martin Luther, 1529

1. 내 주는 강한 성이요
2. 내 주는 강한 성이요
3. 내 주는 강한 성이요

1. 내 주는 강한 성이요
2. 내 주는 강한 성이요
3. 내 주는 강한 성이요

1. 내 주는 강한 성이요
2. 내 주는 강한 성이요
3.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1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2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3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요즘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의 찬양할지어다」
(시 150:6)

OLD HUNDRETH: B.B.B.B.
Genevan Psalter
L. Bourgeois, 1551

T. Ken. 1692

보통으로 ♩ = 92

만 복 의 근 원 하 나 님 은 백 성 찬 송 드 리 고

저 천 사 여 찬 송 하 세 찬 송 성 부 성 자 성 령 아 멘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송영

頌 栄

OLD HUNDRETH (HEFF GOTT, DICH LOBEN)
Louis Bourgeois, Psalms de David, Geneva, 1551

♩ = 84

あ め つ ち こ ぞ り て か し こ み た た え よ み

め ぐ み あ ふ る る ち ち み こ み た ま を

(さ. 539)

실향민과 희년의 의미

김형태 목사
(예장 중경 총회장)

한국 민족은 나라를 잃은 실향민들이다. 토지를 잃고, 소유를 잃고, 고향을 잃고, 자유를 잃고, 마음의 안정을 잃은 사람들이다. 이 실향민들이 조국분단 50년이 되는 1995년을 희년으로 생각하며, 한반도의 재통일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그런데, 성서는 이 민족적 과제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실향민은 나라를 잃은 민족이다.

통상적으로 남한에서는 실향민을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피난민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 고향을 잃었다는 뜻에서 실향민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성서는 히브리서 11장 14절과 15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이 떠난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 나라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본향”이라는 용어는 고향이라는 좁은 뜻만이 아니라, 보다 넓게 나라 또는 세계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나라라는 말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중심한 것이다. 땅은 주민들의 생존과 생산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땅을 잃었다는 것은 생존과 생산의 맥이 끊어졌음을 뜻한다. 비록 다른 땅,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 해도 고향과 나라를 잃어 버린 실향민의 심리기대는, 언제나 본향을 그리워하는 가운

데서, 잃어버린 고향과 고국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며 신경질적인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같은 애향심과 애국심의 전통은 2세와 3세에게도 이어져 간다. 유대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린 실향민들이었다. 그들은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자기네 토지를 찾지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반감이 매우 민감했었다.

한국 민족은 고향과 나라를 잃어버린 실향민들이다. 남한에서는 헌법상으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라 한다. 북한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한은 북한땅을 잃어버렸고, 북한은 남한땅을 잃어버렸다.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국 민족은 모두가 고향땅과 나라땅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이 되고 있는 셈이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떠난다는 것이고, 떨어진다는 것으로, 죽음과 같은 분단인 것이다. 그래서, 분단민족이 가지고 있는 실향민의 심정은, 이념과 정치에 있어서도, 남북한 사이의 대립감정이 부정적이며 신경질적인 적대감과 불신감으로 반영된다 하겠다. 이것은,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남한의 반공주의 등 남북한의 이질적인 이데올로기나, 또는 한반도전쟁에서 서로가 받은 피해나 상처보다 훨씬 더 깊은, 실향민의 심리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내것을 뺏기고, 내땅에 다른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반감이, 분노와 질투와 고독으로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북한, 또는 중국과 남한처럼, 서로 다른 민족들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이념적 충돌이나 또는 전쟁등으로 원수가 되었던것과는 차원이 다른 민족주의적 심리상황이다. 특히 유대민족이나 한민족처럼 단일민족인 경우 이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내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내것을 다시 찾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실향민들 사이의 화해와 평화적 재통일이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민족을, 재통일의 공동분모로 삼아 보겠다는, 그 동안의 이론도 실상 실천 불가능하게 되는 까닭도 이런 맥락에서라 하겠다.

둘째로, 회년의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다.

나라를 잃은 유대 실향민들 앞에 선 예수는, 하나님의 회년을 선포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

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라는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다음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단언하셨다(눅 4:16-21), 회년은 7년마다 맞이하는 안식년의 일곱번째가 지난 해인 50년이다.

구약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회년의 근본사상은, 땅과 주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에서이다. 레위기 25:23에 하나님께서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라 하셨다. 회년의 선포는 개인의 자유와 소유의 회복인데, 그동안 가난등의 인간조건들로 인해 포기된 상태의 개인의 인권과 토지가 다시 원상으로 복귀되는 것이다. 회년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구원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서, 지난날 나라를 잃고 실향민이 되어 노예의 신분으로 가난과 고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고국으로 복귀시킨것을 강조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다(레 25:38)

예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 61:1-3의 회년선포는 메시아시대를 예언한 것이다. 인류의 범죄로 인해 잘못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찾으며, 허무에 굴복했던 피조물이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롬 8:19-23) 것이다. 이것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눅 4:21). 예수는 회년의 선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맺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옛계약은 실패했으나, 예수를 통해 그의 자녀들과 맺은 회년의 세계약은 완성된 셈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이시다. 이 땅에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이며, 이런 뜻에서 회년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것이다.

이 세상의 세속적 법률이나 정치권력에게 회년의 선포를 기대 할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안에서 회년의 선포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전파할 복음이며,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와 교육적 사명이라 하겠다. 성서의 회년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50년마다 지키는 것이며, 7년의 안식년과 7일의 안식일을 그 기초로 한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회년선포도 1995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7년후인 2002년, 2009년, 2016년, 2023년, 2030년, 2037년 등 주님 오실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래서 2045년에는 한반도에 두번째 회년을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회년 기대도 지속될 것이다.

1988년 2월 29일 서울 연동교회당에서 모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에서 채택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은 1995년을 “평화

와 통일의 회년”으로 선포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년을 우리가 대신 선포한 것이 아니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회년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로 분단 50년이 되는 1995년 숫자상 회년에 해당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해로 우리가 선포한 것이다. 이 선언은 “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고백”을 우리가 먼저 하면서 “남북한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건의” 몇가지를 첨부한후, 그 구체적인 교회의 행동지침으로서, 교회갱신운동,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회년축제와 예전개발, 그리고 선교적 에큐메니칼 연대운동 전개를 다짐했다.

이 선언은 회년의 선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와 일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향민들의 이 땅, 한반도속에도 실현시키고 계시는 성령의 활동을 확신하여,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한국기독교교회의 간절한 신앙적 기도라 하겠다.

끝으로 그리스도안에서, 실향민들의 회년은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회년의 선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고 말씀하셨다.(막 1:15) 회년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선포이며, 이는 그리스도안에서 완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안에서 회개와 복음신앙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나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명하시고 약속하신 회년의 선포이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죄악과 불의의 억압과 가난과 고통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세계인류는, 실에 있어서 모두가 실향민들이다. 본향인 에덴을 떠난 실락원자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낙원을 찾게 되었다.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회복하고 주어진 소유도 다시 찾게 된 것이다.

한반도의 회년도 그리스도안에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안에서 평화적 통일이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하나는 회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적 과업이다. 회년의 선포는 회년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민중속에 심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안에서 이미 회복되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복된 소식이다. 엡 4:3에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격려했다. 한반도의 회년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으며, 이 주어진 평화의 통일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할 것이다. 평화적 통일은 잃어버린 땅을 우리가 다시 빼앗는 실지탈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다시 분배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회년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마 28:20) 하는 교육적 과업이다. 회년의 교육적 과업은 인간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기초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서 실천된다. 예수께서 성서를 읽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회년의 선포가 성취된 것이다(눅 4:21).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개혁의 유일한 동력임을 확신했다. 실향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오래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서 실향민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순종하여 원수에 대한 적대심과 증오심과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됨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민중의 마음에 준비가 없이는 전쟁이나 정치적인 수단에 의한 밖으로부터의 갑작스런 통일은 오히려 분쟁과 분열을 내포한 불안한 형식적 통일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적이며,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민족의 통일을 향한 민중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계몽적이며 교육적인 운동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회년의 선포에 순종해서 서로 나누어주는 헌금의 과업이다. 사도바울은 회년의 선포를 헌금으로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 이방지역의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하면서 고후 8:14에 회년적 평등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는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등을 이루는 것입니다”. 북한의 궁핍을 계산한 통일 이후의 비용때문에 비판하고 주저하는 학자들이 있다. 한편 실지회복되면 북한에 자기 교파를 세우기 위한 헌금을 준비하는 교회지도자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적화통일되면 남한에 공산당을 세우기 위해 자금을 준비한다는 북한의 이른을 정당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회년의 선포는 서로가 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계급투쟁이 없이, 그리고 자본주의의 빈부의 격차가 없이 서로가 평등하게 함께 더부러 잘 살아가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회년에 대비하는 헌금은 북한 주민들의 궁핍을 돕는데 사용할 수도 있으

구약성서의 소수 민족

閔泳珍 牧師
(聖書公會)

1. 소수 민족

“소수민족(ethnic minority)”의 특징을 몇가지 각도에서 규정해 볼 수 있다.

1) 여러민족으로 구성된 큰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민족으로서, 그 나라 구성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민족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에 속하는 민족을 말한다. 에스더기의 배경이 되는 아하수에로(485-464 B.C.) 황제가 통치하던 페르시아 제국안의 유다 사람들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러한 소수민족은 때로 생존의 위협 앞에서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거나(에스더기 2:10), 때로는 소수민족 말살정책에 희생될 당하거나 당할 위협 앞에서 불안하게 살기도 한다(에스더기 3:1-15), 태국 북쪽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카렌(Karen)족, 메오(Meo)족, 야오(Yao)족, 아카(Akha)족, 리수(Lisu)족, 라후(Lahu)족 등은 오늘날의 대표적인 소수민족일 것이다.

2) 숫적으로는 열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정복 국가가 되어 자주와 독립을 상실당하고, 정복국의 속국 중 하나가 된다면, 그것 역시 커다란 제국 내에서 소수민족 혹은 약소민족이 되고 만다. 예를 들면, 다윗이 정복한 에돔, 모압, 암몬, 블레센, 소바, 시리아(삼하 8장) 등도 다윗 제국 내에서는 소수 민족으로 전락하고 만 셈이다.

3) 자기들의 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그 나라에서 소수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들 역시 소수 민족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지금 한국인을 일컬어 소수 민족이라거나 약소 민족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까지 일본의 여러곳에서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는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이나, 북경을 위시하여 요녕(遼寧), 黑龍江省 일대의 조선족, 호주에가 있

는 한국인 이민,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미주(美洲)로 이민 간 한국인들, 프랑스,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등지의 한인들, 역시 그 해당 지역에서는 소수 민족이다.

구약 성서에 국한시켜서 본다면, 위에서 이미 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 시대에는 자신들이 여러 나라를 정복 함방하여 대제국을 이루기도 했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져 여러 나라 속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기도 했다. 이렇게 한 민족을 예로 들더라도, 그 한 나라가 독립국가로 홀로 있을 때와, 다른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여러 민족을 다스릴 때와, 나라가 망하여 백성이 여러 나라로 분산되어 소수 민족으로 전락해버릴 때가 있다. 다수 민족으로서 자주와 독립을 누리고 있는 자기 민족을 떠나서 다수 민족 사이에서 소수민족의 삶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2. 소수민족과 다수민족 관계의 성서적 모델

①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② 내가 너로 큰 민족(고이 가들 : a great nation)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③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콜 미슈펙호트 하아다마: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창 12:1-3에 세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 ① 하나는 “복”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② 다른 하나는 “한 큰 민족”과 “땅 위의 모든 가족들”이라는 말이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고, ③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그 “한 큰 민족”이 “땅 위의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구약에는 소수민족(ethnic minorities)이라거나 다수민족(ethnic majority)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지는 아니 하지만, 여기 창 12:1-3에서 사용될 “한 큰 민족”은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다수민족(ethnic majority) 해당되고, “땅 위의 모든 가족들” 속에는 소수 민족이 포함된다. 히브리어에도 영어 ethnic에 딱 들어맞는 말이 없다. English-Hebrew 사전에서 ethnic을 찾아 보면, 그대로 “에트니”라고 음역되어 있다. 구태어 히브리어 등의 어를 찾는다면 “지파(tribe)나 ”족속(clan)“을 뜻하는 “세베트(shebet)“를 지적할 수 있다. 히브리

어 “세베트”는 확대가족(extended family), 혹은 확대 가족의 연합이므로 ethnic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구약에는 소수민족이라는 개념 대신에 “이방인(zar: foreigner)”이라는 것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고, 종교적으로는 이교도를 뜻하는 말이다.

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 섞여 사는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고, 구약의 법은 과부와 고아와 함께 이방 나그네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② 이와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 경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다수인 이방사람들과 구별하였다. 이 때는 “이방인”이 소수민족은 아니다.

③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과 이웃하여 사는 주변 국가의 민족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경우에는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억압받는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고 만다.

삼하 8:1-13에는 다윗 왕국에 함방된 나라들이 나온다. 모압, 암몬, 아람, 블레셋, 에돔 등이 그 나라들이다. 이 나라들은 다윗왕의 침략을 받아 그의 제국에 강제로 함방된다. 다윗왕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은 그 피정복 국가들로부터 막대한 조공을 받아들인다.

1)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간구한 아브라함

다윗왕과 솔로몬왕이 다스리던 때로 돌아가서 창세기의 몇곳을 읽어본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 요셉의 역사를 보면, 이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을 베풀어 준 사실이 공통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창 18:16-33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찬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두 도시를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신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도시에 있을 의인들까지 멸망 당해서는 안된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의인들을 보아서라도 그 도시들을 멸망시키지 마실 것을 지칠줄 모르게 애원한다.

(23) “주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겠습니까? (24) 그 성안에 의인이 선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겠습니까? 의인 선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5) 것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닐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26) 주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선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27)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 밖에 안되는 주제에 제가 주께 감히 아뢰입니다. (28) 의인이 선명에서 다섯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섯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서 마흔 다섯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29)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마흔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 마흔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30)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서른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서른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31)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스무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스무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32)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열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열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창 18:23-32).

장차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오며 이들은 이방인 소수민족들이다. 바로 이러한 이방인 소수민족이 복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께 빈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러나, 다윗 때 와서, 이스라엘은 이 나라들을 침략하여 강제로 다윗 제국에 합병(合邦, annexation)시키고, 솔로몬은 그들에게서 막대한 조공을 받아들였다. 그 무렵에 이 본문을 읽은 이스라엘 독자들은 조상 아브라함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침략하고 그들을 강제로 합병시키고 그 나라들로부터 막대한 조공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역사적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았던 그 이스라엘과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2) 블레셋과 평화조약을 맺은 이삭

창 26:1-33에는 이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삭은 자신이 살던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잠시 흉년을 피하려고 그 곳을 떠나 블레셋 땅 그랄로 가서 몸붙여 산다. 그 기간에 이삭 집안과 그랄 본토민 사이에 갈등도 잦았지만, 거기에서 얼마동안 살다가 브엘세바로 돌아온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브엘세바로 와서 이삭과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한다.

“우리는 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그대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그대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를 잘 대하여 그대를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그대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분명히 주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창 26:28-29)

그래서 이삭은 이 평화조약 제안을 받아들여 피차 침략하지 않겠다는 영구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 이삭이 블레셋과 영구불가침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자가 누구인지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과 솔로몬 당대의 이스라엘 독자들은 누가 이 평화조약을 파기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 다윗이 침략자이다. 이 상황에서 성서는 역사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 전달해줄 복의 근원, 복의 매개체로서 불리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소국가들에게 소수민족들에게 복의 착취자 노릇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한다.

3) 아람 사람에게 복을 베푸는 야곱

창 30:27-30에는 야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의 외삼촌 아람 사람 라반의 집으로 갔는가를 이미 알고 있다. 그의 외삼촌은 아람사람이다. 이방인이다. 야곱을 계속 곁에 두고 싶어하는 라반이 자기의 사위 야곱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네가 나를 좋아한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창 30:27). 성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이방 사람 라반에게 어떻게 복을 끼쳤는지를 라반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한다. 동시에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아람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 복의 전달자 노릇을 했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는 복의 착취자가 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윗은 아람을 침략하여 굴복시키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들로부터 막대한 조공을 받아들이면서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렇게 창대하게 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시켜 주기 위한 복의 근원 구실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 복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30절은 야곱의 입을 통해 아람 사람인 외삼촌에게 히브리 사람 야곱의 공력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다.

4) 이집트 사람에게 복을 베푸는 요셉

요셉의 역사는 창 37 - 50장에 나온다. 이스라엘 사람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그의 슬기로 하나님의 복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기록한 것이다.

3. 옛 이스라엘의 실패와 새 이스라엘의 임무

창 12:1-3의 배경을 분석해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기원전 19세기 전후이다. 다윗왕과 솔로몬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기원전 10세기에는 벌써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있었다.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후손이 나왔으며, 그들이 한 큰 민족을 형성했다. 그러나 창 12:1-3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명은 아직 문제로 남아 있었다. 즉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의 전달자 곧 복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여러 민족에게서 그들이 받은 복마저 빼앗아 오고 있다. 역사적 이스라엘의 세계사적 사명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인데, 그 구실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호세아의 "로암미"

호세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자녀들의 이름에서 표현하였다.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는 "로암미"인데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즉 호세아는 이미 역사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이사야의 "스알야습"과 "마헬살랄하스바스"

이사야 역시 역사적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역사적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끝까지 신

의를 지킨 소수의 남은 무리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고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습'이라고 짓는다(사 7:3). "남은 자가 돌아 올 것"이라는 뜻이다. 이사야는 지금의 역사적 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될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그래서 또 한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짓는다(사 8:3) 이것은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라는 뜻이다.

3) 복의 매개체가 될 이집트, 이스라엘, 앗시리아

또한 이사야는 19장에서 이스라엘 단독으로서가 아니라 중동의 패자들, 즉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앗시리아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화해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 나라를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에(beraka bekereb haarets: a blessing on the earth)" 복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창세기의 민족적인 이상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4) 예레미야의 "새 계약 백성"

예레미야도 거의 같은 생각을 한다. 렘 31:31 이하에 보면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berit hadashah: new covenant)"을 세운다고 되어 있다. 이는 바로 '신약'(新約)이다. 이 계약은 옛 계약 백성이 다하지 못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은 종말의 날에 세우실 그 어떤 소수의 남은 자(remnant)와 새롭게 계약을 갱신하실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이 신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다. 예레미야는 새 계약 백성이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재편성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 재편성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마 8:11-12)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마 21:43)

6) 소수민족에게 복의 메개체가 되는 새 이스라엘로서의 교회

예수님 이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성원이 혈통적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을 초월하고 있다. 사도 바울 역시 같은 생각을 보이고 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방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갈 3:8).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보고 있다. 처음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을 새 계약 백성, 즉 신약 백성으로 생각한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복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으나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러한 역사적 사명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는 다수민족의 교회든 소수민족의 교회든 그들의 존재 이유를 창 12:1-3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事例報告

司會 :

1. 日本 - 八幡明彦
2. 日本 - 吉高叶 教授
3. 在日同胞 - 李清一 牧師
4. 日本現場訪問 - 盧貞烈 牧師
5. 挺身大 - 金慶姬 總務
6. 外國人 勞働者 - 金海性 牧師

分課討議

司會： 1. 金泰奎 牧師 書記：
 2. 書記：
 3. 書記：

全體會議

司會： 金容煥 牧師

재일동포의 과제와 전망

배중도 장로

본회의 의제 1인 재일동포의 과제와 전망

1. 재일동포의 현황

(1) 재일동포의 수

(2) 재일동포의 직업

본회의 의제 2인 재일동포의 과제와 전망

본회의 의제 3인 재일동포의 과제와 전망

한국과 재일한국인사회

지명관 교수
(한림대)

1 在日同胞にたいする日本政府の政策

- ① 占領下における政策と戦後処理
- ② 「追放」かさもなくば「同化・帰化」
- ③ 韓日条約と在日同胞の諸権利
- ④ '91年協議と在日同胞の諸権利

2 在日同胞の人権と民族主体

- ① 世代交替と定住志向
- ② 民族差別撤廃闘争のうねり
- ③ 行政差別撤廃闘争から指紋押捺拒否闘争へ

3 日本社会の変化と在日同胞の变革

- ① 在日同胞問題と市民運動の広がり
- ② 日本の国際化と地方自治体の取組み
- ③ 在日同胞の文化運動

4 積極的民族意識の形成と共生社会に向けた力量の構築

1. 유럽의 경우에는 민족혼합 지대였기 때문에 민족자결주의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실제로 국민, 국가란 다수 민족이 지배하는 일민족, 일국가 주의가 지배한 것이었다. 다른 국가내에 있는 자기 민족을 찾아서 나치스는 범 게르만 민족주의를 부르짖었다.

2.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일본제국주의란 민족말살 정책과 경제수탈 정책을 혼용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국토를 떠나 유랑하는 민족성원이 있게 됐다. 재일 동포는 1965년 한일협정 때까지는 [국가없는 민족] 이었다. 그러므로 근대적 인권이란 국민적 인권이기 때문에 무인권 상태에 방치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오늘날 소수민족 문제는 세계정치적 과제다. 일본은 이것에 어떻게 대응하며 우리나라는 해외에 있는 동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재일동포 자체의 삶 그 자세에 대해서는 유태인의 경우를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 카프카나 벤야민은 돈많은 아버지의 세대에 저항했다. 로자.록셈부르크는 독일인 이상의 유럽 전통을 이어받고 그야말로 유럽정신이 퇴폐해졌을 때 도리어 홀로 그것을 대표 하다시피했다.

4. 차별을 받고 있는한 "나는 재일 한족인이다" 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민족적 사업에 공동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그런 비존을 가진 정치 그것을 국민에게 의식시키고 일본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를 모색해야 하겠다.

1. ヨーロッパの場合は民族混合地帯であったがために民族自決主義はとても困難な課題であった。国民国家とは多数民族が支配する政治体制であった。他の国家にいる自国民族を求めてナチスは汎ゲルマン民族主義を掲げた。
2. 韓日関係における日本帝国主義は民族抹殺政策と経済収奪政策を混用したものであった。こうして国土を離れて流浪する民族成員たちが現われた。在日同胞は1965年まで「国家のない民族」であった。近代的人権が実は国民的人権であったがために彼らは無人権状態に放置されていたわけである。
3. 今日少数民族の問題は世界政治的課題である。日本はこれにどう対応できるか。韓国は海外にいる同胞の問題にどう対応できるか。在日同胞の生活またはその姿勢についてはユダヤ人の場合を参照す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カフカやベンヤミンの場合は経済的に豊かな父親の世代に抵抗した。ローザ・ルクセンブルクはドイツ人以上ヨーロッパの伝統を受けついでいた。そのためにヨーロッパ精神が退廃した時に、かえってひとりそれを代表したほどであった。
4. 差別を受けている以上私は在日韓国人だと答えざるをえない。今後民族的事業に共同で参加する道を開かねばなるまい。そのようなビジョンを持った政治、それを国民に意識させ日本にもそれでもつて影響を与えうる政治を模索できればと思う。

전후 50년과 일본교회의 과제

穂鷹 守 (外基協)

일본의 패전후 50년의 節目의 해를 눈앞에 두고, 戰後 일본교회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 보며 在日韓國人과의 관계에서 혹은, 한국교회와의 관계에서 50년 이후 무엇을 과제로 삼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후 50년을 역사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검증하는 역량은 제게는 없습니다.

외국인 등록법의 抜本的 改定을 운동의 중심적 테마로 있는 조직에서의 발제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후 50년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또는 외국인 등록법(外登法)의 變惡으로부터, 일본정부의 전후의 재일한국, 조선인 정책을 살펴 거기에 표현되고 있는 國家意思와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일본인 사회의 의식을 제 나름대로 찾아내고 검증하는 일입니다. 그 위에 일본교회가 패전후 50년을 節目으로하는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과제로 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후반의 프로그램에서 한국교회, 在日교회, 일본교회의 3자가 각기의 입장을 넘어서 공동으로 다뤄야 할 과제를 끄집어 내기 위한 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협의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 富國強兵과 脫亞入歐

1868년 근대일본의 출발점으로서의 「明治」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의 제1조에서 「대일본제국은 万世係의 天皇 이것으로 통치한다」라고 선언했던 천황제 국가의 출발이었습니다. 明治정부는 국가지배의 정당성의 근거를 「万世係의 天皇」에 두고, 歐美諸國을 뒤따라, 앞지를 것을 목표로 「富國強兵」과 「脫亞入歐」를 들어서 제국주의 국가의 무리에 들어가기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富國強兵」을 들어서 1894년의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시아 지배에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脫亞入歐」도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해서 대륙으로, 남방으로, 세력확대를 위한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그 흐름속에서 1910년에 한국을 합병하고, 1931년의 「滿洲事變」에서 「偽滿洲國」의 건국, 1937년의 중일전쟁, 1941년의 미국, 영국에 대한 선전포고 등 에스컬레이트했던 것입니다. 歐美에 뒤따라 앞지를 것을 목표로 해서 날뛰던 일본은 1945년 패전에 의해서 처음으로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1873년에 「기리시단 禁制」의 高札 이 때어지고 일본의 사회는 겨우 구미문화의 중핵인 그리스도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회에 뿌리깊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일본교회는 적극적으로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하고 그 나름대로의 성과를 부여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래 万世一係의 天皇에 의한 국가통치의 정당성의 근거를 「神勅」에 구했던 천황제 국가와 하나님의 지배를 믿는 교회와는 공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 되어집니다만, 대단히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면, 일본의 그리스도교는 국가지배의 틀속에서 타협의 길을 찾아왔었고 서서히 교세확대의 방법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조선반도를 식민지로 한 다음 식민지 지배에 편승한 형태로 적극적으로 조선전도에, 중국전도로 진출해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전시중에는 스스로 神社參拜를 받아들이고 조선의 교회의 신앙을 관철하는 싸움에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神社參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등 현대에서 생각해 보면 보기 흉할만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공인된 십수년의 일본교회로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지않겠습니다만, 전후 1967년에 당시의 鈴木議長 명의로 발표되었던 일본기독교단의 「전쟁책임에 대한 고백」의 인식에 따르면, 오히려 「조국이 죄를 범했을 때 교회도 또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1945년 8월15일, 일본국가도 교회도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도 교회도 明治이래 계속해 온 길의 잘못을 인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기독교단이 불충분하더라도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걸음을 시작했던것은 1967년의 일이었습니다.

2. 식민지 지배와 전후처리

1910년 한국합병에 의해서 당시의 한국민은 본인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日本帝國臣民」이 되었습니다. 이래 1945년 일본의 패전, 조선반도의 해방을 맞기까지 한국인은 「대일본제국」이 침략전쟁의 길을 향한 때의 흐름속에서 일관해서 일본의 국가와 국민에 의해서 수탈되고 이용된 존재였습니다. 한국민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식민지 지배의 역사는 양국 국민의 새로운 교류에 있어서도 절대로 잊고 댄어버릴 수 없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혹은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서 점점 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1910년이후 태어난 사람들과 동시대를 살아온 일본인은 그 역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생각을 일으켜 상호관계의 발상의 원점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개인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만, 1929년에 태어난 저는 당시의 조선인 벗의 일을, 어느 정도의 죄의식을 가지고 회상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같은 시대를 산 일본인과 조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난 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일한국조선인과 만나고, 또 재일한국조선인의 인권문제를 생각할 때 그것은 과장해서 말하면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한국조선인과 만나게 했던 원점이 된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기에 그것만을 전하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910년에 일방적으로 「日本帝國臣民」이 되었던 사람들은 1952년에 일본국과 연합국이 체결한 평화조약의 발효일까지는 법적으로는 「일본국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조선인이 국내의 다른 민족으로서 在日하며, 계속되는것에 큰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일본 민족중심의 나라건국」으로 回歸하려고 하는 옛 지배층의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패전후의 대량 失業 가운데 군인, 군속이나 일반인의 철수자, 戰災 피해자의 일본인보다도 더욱 최저변에 법적으로 무권리의 재일한국조선인을 이뤄나간다는 사회구조를 낳게 했습니다. 歐美諸國 등이 구식민지출신자에게 시민권을 주었던 것과는 달리 1952년에는 재일 한국조선인을 타관에 나가 돈을 버는 노동자와 같은 지위로 취급하는 「出入國管理令」의 제도가 확립됩니다.

둘째로 조선반도.중국에 있어서 사회주의 정책의 성립을 두려워했던 GHQ와 일본정부는 애초부터 공동으로 재일한국조선인의 치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연합국의 점령하에서 1947년에는 외국인 등록령에 의해서 「가상의 외국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위에 놓게 되었습니다. 또 GHQ가 조선인은 어떤 경우에는 전승국민으로서, 어떤 경우에는 구적국민으로서 다루어도 좋다고 하는 지령을 낸 결과 「민주화」 정책은 재일한국조선인에게는 전혀 無緣의 것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등록령으로부터 출입국관리령으로 이어졌던 「퇴거 강제조항」은 드디어 최종적인 정치탄압의 무기로서 이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 관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본교회는 이 시기 「평화.민주주의」를 내걸면서 1950년에 시작된 조선전쟁에 대해서 「한국난민구원」 등에 돌입했습니다만, 식민지 지배와 戰後 국제정치의 사이에서 농락이 계속되어진 재일한국조선인의 인권상황에 눈을 돌리고 발언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에서도 분명한 것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에 책임을 엄중히 되묻고 교회자신의 역사관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 최초의 전후보상에서, 국적에 의한 제외는 시작되었다.

평화조약의 발효를 기다리고나 있었던 것처럼 일본정부가 실시했던 최초의 전후보상은 「戰優病者戰沒者遺族等援護法」이었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국가보상의 정신에 근거한 軍人 軍族 등이었던 者 또는 이와 같은 사람의 유족을 援護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후에도 이 원호법관계의 법률이 차례로 제정되고, 전몰자의 부인, 형제, 부모에 이르기까지 실로 자세한 보상이 있었습니다만, 이와같은 틀의 관계에 모두 「일본국적의 者」라고하는 조건을 붙이고, 일본인과 같은 곤고한 삶을 강제당한 주로 한국조선인은 최초의 전후보상에서 제외되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1953년 8월에는 군인을 포함한 恩給制度가 부활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참담한 경우를 가져온 최대의 책임자인 군국주의자가 특히 특권적인 취급을 받은제도는 폐지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점령군으로부터의 지시로 중단되어져 있던 것으로부터의 부활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저 전쟁에서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이었던가 하는 반성의 일면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부의 생각이 구체적인 말이 되어 표현되었던 것은 1964년의 천황탄생일을 기해서 재개되었던 전몰자 훈장수여시에 행해졌던 당시의 池田總理大臣의 담

화이었습니다. 그는 「금번의 전쟁에서 조국을 위해 존엄한 생명을 바친 많은 분들에게 국가로서 감사의 성의를 표하고 그 생전의 공적을 드러내 표창하는 것이며...」라고 말했던 일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황의 명령으로 종든삶은 관계치 않고 일방적으로 침략전쟁에 끌려갔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각지에서 2000만이라고 이야기되는 민중의 죽음에 직접, 간접으로 가해자로서 날뛰었던 전몰자의 「생전의 공적을 표창한다」라고하는 의식에는 전쟁책임의 시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일교섭은 당시 중단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최대의 이유는 久保田발언이 계기였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일본정부 대표가 「식민지 지배는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반복, 한국내에 남아있던 일본의 자산의 반환을 요구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池田總理大臣의 의식에는 저 전쟁이 침략전쟁이었고, 식민지 지배는 잘못되었다고하는 인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국강병과 脫亞入歐를 목적했던 明治이래 일본이 추진해왔던 길이 이 시대에 패전이라는 좌절을 극복해서 새로운 모습의 경제적 침략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던 시대라고 느끼게 합니다.

극히 최근까지 여러방면에서 되풀이 되고있는 각료나 국회의원의 망언은 실은 망원이 아니라, 戰前에도 戰後에도 끊임없이 일관되고 있는 보수정치체제의 중핵인 일본인의 본심의 협로인 것이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일본제국」 시대에서 계속되는 자민족 중심주의, 천황중심의 역사관, 「동양의 盟主」를 자처하는 전전에서부터의 거만의 계속인 것입니다. 더우기 거기에 더하여 조선전쟁, 베트남전쟁 경기를 발판으로 삼아 아시아에의 「배상금」 조차 경제원조로 바꿔치기했던 「경제대국, 일본」 이 탄생하는 과정으로 小澤一郎에 대표되는 세대에도 재생산 되어진 대국적 거만입니다.

村山정권조차도 형식적으로 「침략행위」는 인정해도 법적인 범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책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도 역사인식의 부족과 함께 대국의 교만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시아 諸國의 정부도 경제원조를 할 의사를 보여준다면 납득할 것이라는 관료의 정치적 계산이 일본의 전후 보상에의 신중한 검토를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도 생각됩니다. 1965년 한일조약도 전후보상의 시점에서 다시보게 될 때 기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조약에의 반대운동은 일본교회에서는 조선전쟁을 계기로 일어난 「그리스도인의 평화의 회」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의 일본인의 운동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침략」, 미국을 중심으로하는 「동북아시아 군사동맹」, 조선반도의 「남북분단강화」에

대한 반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일조약에는 1947년의 외국인 등록령이래 일관되고 있는 在留 그 자체의 국적조항인 퇴거강제를 포함한 한일법적지위협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일본인의 운동에는 재일한국조선인의 법적지위문제에의 충분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재일한국청년동맹등의 운동에 대한 연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전전에도 전후에도 일관해서 배제되어온 재일한국조선인만이 欺瞞을 꿰뚫어 본 소수자(minority)였습니다.

오늘날 전후보상이 많은 시민단체 등 국제적인 연대로까지 넓어져 일본에 있어서 기초를 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재일한국조선인에 의한 인권운동이 큰 배경으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국적을 박탈해서 무권리 상태에 방치한다면 귀국하든가 귀화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의 지배층, 그리고 같은 인식이었던 일본사회는 70년대에 많은 異議신청의 운동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국적차별」, 「외국인 관리」 등 65년의 한일조약에서 아무 해결책이 없었기에 문제가 집점이 된 日立취직 차별사건, 출입국관리 개악법안, 퇴거강제 사건등을 둘러싼 재일한국조선인의 싸움에 연대해서 일본의 교회 가운데에서도 지역의 노동자 시민등의 싸움에 참여하는 교회가 나왔습니다. 70년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우리들은 「국적(시민권)」을 뺏아왔던 전후의 조선인 관리의 중대성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일한국조선인 자신이 「在日로서」 발언하는 일은 식민지 시대로부터 계속 되어온 일본의 「同化(皇國臣民化)」와 정면으로 대결해서 스스로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찾으려는 싸움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이너리티(minority)로서의 고투에 함께 선 일본인 그리스도인은 그들, 그녀들을 이러한 고뇌의 현실에 놓여있는 「일본의 문제」를 묻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것이 그리스도교회의 「전쟁책임」을 물어온 자세와 천황제에 상징되는 자민족 중심주의, 차별적 동화주의를 묻는 자세로도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4. 일본교회의 싸움, 특히 외국인 등록법 개정운동에서 보여져 온 일

일본이 「단일민족국가」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며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교회와 시민사회의 양식을 형성하는 부분이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반복되어 이야기 되어온 일이었습니다. 일본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로

는 오랜 아이누족이 있고, 근세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최초의 식민지라고도 일컬어지는 沖繩의 사람들이 이야기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적 의식에 강한 동질화를 요구했던 사회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람들을 「일본인」으로서 민족속에 둘러싸여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하려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틀에 집어 넣으려고 했던 것이 재일한국 조선인이며, 대만 출신자였습니다. 일본의 패전후 한국조선인, 대만인등 구식민지 출신의 많은 사람들은 귀국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만 아이누 사람들, 沖繩사람들은 일본의 패전에 의해서도 여전히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때까지도 그 이후도 동화를 강제하는 일본사회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오지 않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누 사람들은 「舊土人法」이라고 하는 굴욕에서의 해방을 요구해서 운동을 전개했으며, 민족의 문화적, 종교적 전통을 회복하고 혹은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흐름가운데 큰일로서는 민족의 대표자를 국회에 보내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족회복의 운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선반도와 같이 일본의 아시아침략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요당해 왔던 沖繩에서도 천황제의 延命工作의 희생이 되어 다수의 주민이 휩싸여 죽은 沖繩戰의 경험에서 재차 그와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표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미일안보조약에 기초해서 설치되어 있는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운동에서 민족으로서의 언어와 문화를 되찾으려고하는 젊은 세대의 운동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또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지문관리라고 하는 비인도적인 제도에 항의했던 일에 의해서 반의등법 운동은 식민지화와 皇民化정책, 전후 단일 민족주의 정책에 의해서 짓밟혀져 온 타 마이너리티집단에의 비인도적인 정책과의 공통성을 표출해왔던 것입니다. 재일한국조선인 자신이 본명을 밝히고 말과 문화 역사관을 되찾으려고 하는 싸움은 아이누, 沖繩의 사람들, 비차별부락민, 더우기 해외의 마이너리티와 원주민과도 공통되는 과제라고 하는 것이 80년대에서 90년대의 반의등법운동가운데 지적되어 왔습니다.

지금 일본교회는 「외기협」에 연대하는 일로서 「선교의 과제」의 중심으로 이 「인권, 역사, 민족, 아이덴티티」에 관계되는 물음을 안을 필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법의 과제가 된 의등법 발본개정에 대해서 우리들은

일본사회를 설득할 논리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의 개념을 제시해 왔습니다.

첫째로, 국적, 역사성, 법적지위를 묻지 않는 모든 외국인에 적용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있습니다. 지문을 차별적으로 채취, 관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기본권이요, 일본인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없는 이상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문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역사적 경위와 생활의 상태에서 주민으로서 다뤄져야 할 「거주권」이 있습니다. 등록증명서의 상시 휴대의무를 시작으로 하는 관리제도등 주민 기본대장제도보다 엄한 중벌제도는 재일한국조선인을 선두로 하는 정주의국인을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권리주체로서 다뤄질 경우 해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거주권 혹은 재류권에 대해서는 오랜 재판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계신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최창화목사로부터 재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일의 영주권 문제에 즈음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역사적인 민족 아이덴티티집단에 대해서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안될 권리로서 역사관, 문화를 회복하고 계승해서 교육이나 문화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상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름이나 말까지 박탈한 皇民化, 동화교육을 밀어부쳤던만큼 적극적으로 재정조치를 강구해서라도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공교육의 장소에 외국적의 교사를 채용한다든지 일상생활에 밀접한 지방자치의 공무원에 일정의 비율로 한국조선인의 채용을 의무화한다든지, 민족 커뮤니티의 대표를 행정, 입법에 참가시켜 그 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조치를 만드는 일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민족적 마이너리티와 함께하는 「공생사회」에 질적 변환을 지향할 일본사회에는 불가피한 전제입니다. 앞으로는 특히 재일한국조선인의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965년의 한일법적 지위협정을 바꿔놓는 국내조치로서 1990년에 「한.일합의」가 되어지고, 국내조치로서 「입국특례법」에 의한 특별영주자격의 설정, 「외동법의 개정」 등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권리의 하나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992년 시행의 신외국인등록법의 「영주자의 지문압날폐지의 대리조치로서 서명등록과 가족관계 사항의 등록을 도입」한다는 태도는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지문문제를 다룬 해결은 아니고, 교사, 공무원의 채용, 지방자치에의 참가에

대한 일본정부의 해석으로 한국정부의 타협도 거주의 권리성을 갖지않는 외국인으로서의 위치부여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일한국인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입관제도의 사상을 넘어선 것은 못되었습니다.

단 한국국적, 조선국적을 묻지않고 자자손손까지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일이란 일본에서는 적은 숫자이지만, 일시체제가 아닌 역사적인 외국적 커뮤니티를 인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으로서」 국내에 이질적 존재를 인정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족으로서 살아갈 과제가 재일한국조선인측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들과의 고통을 바라는 일본사회와 교회에도 공동의 과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민족적 마이너리티의 문제에 대해서 최근 개최된 「마이너리티문제와 선교전략 국제회의」의 보고도 문제되어 있습니다. 그룹으로 분리해서 협의하면서 전체의 토의가운데 더욱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이누, 沖繩, 한국, 조선, 대만등의 사람들외에도 일본의 치우친 경제발전에서 생겨난 경제의 불균형 위에 「풍부함」의 배당을 요구해서, 「가난하게 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지역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서 일본사회에 정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 그녀들의 대부분은 정규의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일본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의 노동부족의 해소를 위해서 문호를 연 日係人の 노동자와 그 가족이 다수, 이것은 정규의 비자로 정주하고, 혹은 이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歐美인뿐만 아니라 거의 세계의 각국에서 많은 국적과 민족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본사회는 환상의 「단일민족국가」가 아닌, 이미 현실은 다국적 다민족의 국가가 되어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 일본교회에 가져올 과제도 또 다양하게 되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 일본국적 이외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문제」로서 먼저 받아들였던 과제를 일본교회는 조금 늦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의 시간에서 한국교회측으로부터도 「외국인 노동자운동」의 보고가 있다고 하기에 깊은 공부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